

# 전쟁이 아닌 평화, 그것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



핵실험 이긴 남북 문인들의 하나 되려는 하는 열망

예상할 수 있듯이 민족문학인협회의 결성 과정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작년 7월 백두산에서 ‘통일문학의 새벽’이란 행사에 참여한 남과 북의 문인들이 통일된 문학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30일로 잡혀 있던 결성식을 북한 측이 홍수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때 이대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여타 문학 단체처럼 일정에 관한 논의를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거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날짜를 잡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분단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모임을 하고 해야 했으니까요. 어렵게 날짜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이번처럼 ‘핵실험’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장의 말처럼 남과 북의 만남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상황’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문인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10월 31일 결성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 벅하고 벅르던 만남인 만큼 그 성과와 의미도 컸다. 남과 북의 공동회장단이 협회기관지인 <통일문학>발간과 ‘통일문학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통일문학>은 우선 내용적 측면으로는, 남쪽의 작품

10월의 마지막 날. 단풍으로 물든 금강산에 남과 북의 문인 80여 명이 모였다. ‘6·15민족문학인협회’(이하 민족문학인협회) 출범을 위해 남쪽과 북쪽의 문인들이 만난 것이다. 민족문학인협회는 분단 이후 최초로 결성된 남북 민간단체로 출범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남북의 정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치러진 행사라 남과 북의 문인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이번에 출범한 민족문학인협회의 남측 집행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시인을 만나 협회의 결성 과정과 그 뒷얘기를 들어보았다.

은 북쪽에서 추천하고 북쪽의 작품은 남쪽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을 상호 추천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는 월간이나, 계간이나를 놓고 논의가 있었는데 부정기간행물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북의 상황이 가변적인데 발행 기간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만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통일문학상'의 후보작품을 고를 때도 각 분야의 작품들을 상호 추천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일문학〉에 관한 이런 합의는 언뜻 초보적이고 막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문학〉이라는 이름의 잡지가 남과 북에서 각기 나오고 있는데, 협회의 기관지로 창간되는 〈통일문학〉은 그것들과 분리된 별도의 잡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잡지의 기획과 제작은 통일된 원칙을 지니지만 표기법과 판권 등에 관해서는 양측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도 이번 합의의 중요 사항이다.

"처음에는 남북의 서로 다른 맞춤법에 따라 두 가지로 잡지가 나오겠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이 완성되면 통일된 맞춤법에 따라 잡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서의 문학의 가능성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첫걸음이었기에 지난 10월 31일 결성식을 위해 금강산에 모인 양측의 문인들은 설레고 긴장된 모습이었다. 도 위원장이 이날 결성식의 백미로 꼽은 것은 남과 북이 함께한 낭송. 남측의 신용목 시인과 북측의 박경심 시인이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한 것이다.

"분단 60년은 쉽사리 메워지는 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북문인 단체를 만든다면 공통된 경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분단 이후가 아닌 분단 이전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나야 화제나 얘깃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는 남북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시기에 선정된 것입니다."

최초의 남북 민간단체가 다른 분야가 아닌 문단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서, 문학의 가능성이 가장 컸기 때문이리라. 문단의 몇몇 사람만 참여한 제한된 단체가 아닌 범문단적 단체라는 것도 이번 민족문학협회의 큰 의의다. 북쪽의 문단을 대표하는 조선작가동맹과 남쪽의 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무소속' 문인들까지 두루 참여했다.

그러나 남북의 문학적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일단 '민족문학인협회'를 위한 두 차례의 만남이 모두 북쪽에서 이루어져 세 번째의 만남은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모양새가 맞다. 허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이 아직 북측에서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쪽과 남쪽의 보폭 차이에 답답한 것은 비단 기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도 위원장은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과 북은 정전 상태에서 체계가 다른 생활을 오랜 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그것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경 색 된 남 북 관 계 푸 는 실 마 리

도 위원장은 언젠가 양측 작가들이 서로의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쓰게 될 날을 희망한다. 그의 희망은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가 이번 결성식에서 더 큰 희망을 보는 것도 현시점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갖는 의의가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교류에서는 남북의 갈등도 문제지만 남남의 갈등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갈등이 너무 깊어 조율이 안 되고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인협회는 남쪽의 범문단이 북쪽의 문단과 만났다는 것에서 비록 행사 규모가 조출하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 갖는 문학사적, 사회적 의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문**

취재\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